

강진군 '누구나 반값 여행' 흥행 성공

8월 카드 매출 작년비 8.5% 증가 상가 매출 쑥...강진 인지도 상승 9월까지 관광객 213만명 찾아

강진군이 추진한 누구나 반값 여행으로 상가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과 한국관광데이터랩 공식 통계 등 따르면 군은 지난 8월 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이는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다시 한번 '반값 효과'를 제대로 증명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반값 여행 지원금, 강진사랑상품권 15% 할인 등 군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강진사랑상품권 결제율이 전년 대비 46% 증가하면서 지역화폐 회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반값 여행'과 '지역 축제'를 통해 올해 9월 기준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 대비 37% 더 늘어난 213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군의 반값 여행은 관광객들의 경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성장에 거대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강진원(가운데) 강진군수가 제2회 강진 하백축제에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시작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강진군의 인지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목적지 검색량 전년 대비 40% 증가, SNS 언급량 22% 증가(출처:한국관광데이터랩), 네이버 검색량 26%(출처:네이버) 증가는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을 보여주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관광과 축제는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전 업종 매출 증가, 군민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강진군 브랜드력 상승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심수택 의병장 순국 114주기 추모식

함평군은 최근 남일 심수택 의병장 순국 114주기 추모식을 월야면 가차마을에서 거행했다고 7일 밝혔다.

월야면 번영회가 주관한 추모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족과 기관·사회단체장, 학생,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선생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추모식은 약력소개, 장학금 지급과 공로패 증정, 헌화 및 분향, 추모노래,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전 행사로 월야중학교 관악단 학생들이 직접 추모 음악을 연주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상의 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일제의 총칼에 맞서 열렬히 투쟁했던 남일 선생은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영광과 승리의 역사로 바꾸어 놓은 영웅"이라며 "선생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남일 심수택 의병장은 1871년 함평 월야면 출신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조직



지난 4일 월야면에서 거행된 남일 심수택 의병장 추모식에서 이상의 함평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해 장성, 영광, 함평, 남원, 장흥 등지에서 일본군과 항전해 전과를 올렸으나 이후 일제에 체포돼 1910년 순국했다.

구한말 한반도 내에서 마지막으로 조직적인 항일전쟁을 전개하고 수많은 전과를 올린 남일 심수택 선생을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추서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지난 5일 화순 쌍봉사에서 신도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세현(범능스님) 11주기 가을음악회가 열렸다. (쌍봉사 제공)

화순 쌍봉사 범능 스님 11주기 가을음악회

화순 출신으로 '노래하는 스님' 민중음악가로 세상을 위로하고 밝은 빛을 밝힌 정세현(범능스님)의 11주기 가을음악회가 지난 5일 화순 쌍봉사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대한불교조계종 화순 쌍봉사와 화순군, 사단법인 불지불교문화원, 화순불교사암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한 것으로 500여명이 찾아 함께 했다. 쌍봉사 증현스님은 "노래를 통해 사람과 세상을 위해 헌신했고, 종교음악을 통해 구도행을 실천하다 짧은 생을 마감한 정세현 스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고 말했다.

현 범능스님은 화순의 소중한 자산"고 말했다.

정세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가수 양수경을 비롯 감성연주 밴드군, 팝페라 가수 바리톤 임준식의 공연과 함께 국악가수 이명진 등의 노래로 범능정세현의 곡 '통일이여 오라', '산사문답' 등이 선보여 추모 열기를 달궜다.

공연과 함께 문기연(사)불지불교문화원 원장은 소아암 환우들의 치료를 위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200만원을 전달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사랑상품권 9월 판매액 전월비 5배 증가

장성군의 지난 9월 장성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한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과 개인 구매해도 100만원 상한 등의 정책이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장성군의 집계 따르면 지난 8월 대비 9월 카드형 상품권 구매액이 무려 5배 증가했다.

종이형 상품권 구매액까지 포함하면 지난 9월 한 달간 총 47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특별할인이 적용된 장성사랑상품권이 명절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이끈 효자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상품권 판매 확대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가 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운영에 나선다. 지난해 현장지원 장면. (나주시 제공)

나주시, 청년 농업인 농촌 안착 돕는다

66명 대상 20회 현장지원

나주시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나주시는 오는 11월29일까지 20회에 걸쳐 '청년 농업인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처음으로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 66명을 대상으로 영농 현장 진단·코칭, 품목별 영농 기술 교육 등 경영노하우를 전수한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219명을 선발했다.

이들 청년 농업인에게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함으로써 영농 초기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청년 후계 농업인으로 선발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또 각종 교육·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착자금 등 최대 5억원까지 융자(고정 1.5%·5년 거치 20년 상환) 받을 수 있다.

운영태 나주시장은 "현장지원단 운영이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국토안전관리원 현장 점검 업무 재협약 건설안전 협업체계 구축

담양군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와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업무 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1년 MOU 체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재협약으로 2027년까지 담양군과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현장 안전 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한다.

협약 내용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은 3년간 담양군과 협의해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부실 공사 및 안전 점검을 수행하며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자문도 제공한다.

지난 3년 동안 담양군과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우기와 겨울철을 대비해 중·소규모 건설 현장 대상 연 2회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담양군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공사 참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연 1회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제공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부실 공사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건설공사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안전사고 없는 담양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10월호

2024년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예향》 창간 40주년

독자와 나는 즐겁고 진지한 대화

- 매달 설렜던 만남, 《예향》 인터뷰
- 변화의 길목마다 함께, 《예향》 기획
- 남도 작가들의 발표 무대, 《예향》 표지

멋과 함께

장흥 여행

우드랜드 역세물결 천년학길

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⑦

육자매기 가락이 너울대는 남농 허건의 산수화

호남의 누정 ⑥-광주 호가정 푸른 영산강물에 흐르는 선비의 노래

예향 초대석

오은영

"경청하면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

시월의 어느 멋진 날 페스티벌 전남

기획 30주년 맞는 광주비엔날레

회제의 예술인

신안군 예술 섬 프로젝트 참가한 '영국 국민 조각가', 안토니 곰리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팔순의 퍼포머, 성능경 뉴욕 구겐하임도 주목했다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영화관 티켓 1만5000원 시대, 이게 다 비싼 배우 몸값 때문?